수묵진경으로 만난 山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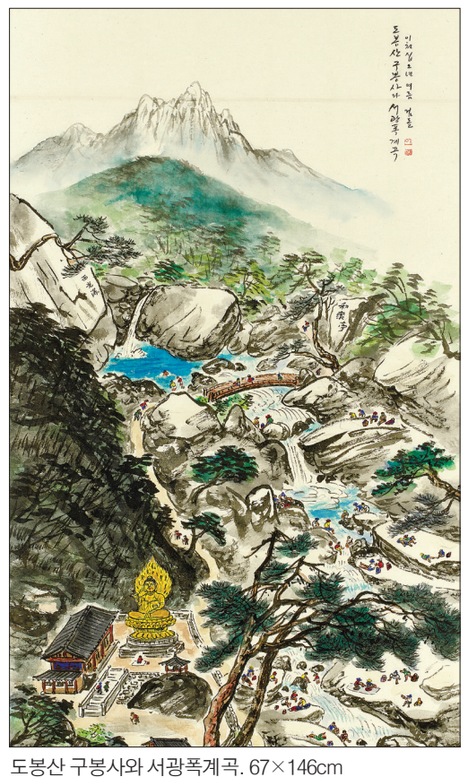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 JCC아트센터

구작과 신작 40여 점 수묵화 선봬
북한산 · 도봉산의 진면목 재구성
산수와 어우러진 도심 · 사찰 풍경
실경산수 · 생활산수 · 생활풍속도
진관사 · 망원사 등 10여 사찰풍경도



이호신 作, 삼각산 진관사. 198×133cm.


도봉산 구봉사와 서광폭계곡. 67×146cm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북한산의 기경과 도봉산의 영봉을 수묵의 진경으로 만난다. 그 기경과 영봉의 수묵 속에는 부처님의 집들도 들어있다. 북한산과 도봉산에 깃든 사찰들을 한 폭의 수묵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랜 시간 우리의 풍경을 수묵으로 그려온 이호신(62) 화백이 1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서울 JCC아트센터에서 초대개인전 '북한산과 도봉을 듣다-이호신 생활산수전' 을 개최한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 그림과 2019년 새로 그린 그림을 합친 150여 점 중에서 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생활산수' 를 표방한다. 관념으로 채색하지 않는 이 화백의 그림 속에는 행락객들의 모습과 원경 속 도시의 아파트가 산수와 어우러진다. 실경산수, 오늘의 삶이 녹아든 생활산수다.

이 화백은 오랫동안 전국의 산하와 마을, 사찰, 서원 등을 수묵으로 그려왔다. 우리의 풍광과 문화유산 그리고 그 속에 스며있는 '우리' 를 그려왔다. 그는 쉼 없이 진경으로서의 산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새롭게 보여준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산세를 굽어보는 대관적 시선으로부터 풍경과 사찰의 조화, 근경의 바위와 폭포에 이르기까지, 전체와 부분이 어우러진 가운데 산의 일부로 자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을 그리고 있다.

안순모 JCC미술관장은 "이호신 화백이 그린 북한산과 도봉산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각이 선연합니다. 마치 직접 보는 듯 시원하게 시야가 트이는 작품에서, 직접 가도 보지 못할 아름다움을 진경으로 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이 화백은 이번 전시를 위해 북한산과 도봉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 같은 곳을 계절을 달리해 반복적으로 오르고, 길을 달리해 오르며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과 도봉산이 지닌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첩에 옮기고 재구성하여 화폭에 담았다. 그림은 생활산수가 되어 오늘의 우리를 풍광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 시대의 산수풍속도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화폭에 농축시킨 북한산과 도봉산의 풍경들은 진경이면서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이호신의 세계다. 눈으로 본 풍경이 아니라 묵은 안목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수십 년간 인문정신 속에서 사생해온 이 화백은 이번 작품들 역시 자신의 인문안목으로 북한산과 도봉산의 진면목을 그려내고 있다.

"그가 화폭에 농축시킨 대관소시(大觀小視)의 기관(奇觀)을 보노라니 미상불 감탄을 넘어 경배의 마음마저 든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안목 앞에 처음 전모를 들킨 도봉의 영봉과 북한의 기경을 만나러 가자."

정민(한양대) 교수가 위와 같이 밝힌 이번 이 화백의 그림들은 3m의 대작부터 각각의 봉우리,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문화유산인 사찰과 탑 그리고 근경의 특징적인 북한산과 도봉산의 생태까지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진관사, 망원사 등 10여 점의 사찰풍경들이다. 대부분 부감으로 그려진 사찰의 모습들 역시 산수와 어우러진다. 이 화백은 산과 하나가 된 사찰을 그리고 있다. 이 역시 진경들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림들이다. 절은 산의 일부로 그려지고, 산은 절로 인해 풍경으로 완성된다.

현장에서 사생한 화첩을 통해 작품제작의 과정을 볼 수 있고, 영상을 통해 이호신 화백의 작가적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미술과 강사를 역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화여대박물관 등에서 실기 지도 및 특강을 했으며, 1989년부터 지금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환경부 장관상(2003년)을 비롯해 다수 수상했으며, 〈화가의 시골편지〉, 〈가람진경〉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 다수 출간했다. (02)2138-7373.

전승전통등 경연대회 수상작 전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19년 전승전통등 경연대회 선정작품 전시회' 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우리 등(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등 제작 전승자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는 어린이, 대학생, 일반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부문 천진불상〈사진1〉은 박수빈(봉선사),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사진2〉은 김진선(동덕여자대학교),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사진3〉은 김명순(보원사) 씨가 수상했다.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는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전통등 3종(연꽃등, 팔모등, 수박등)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응용 제작되어 우리의 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살린 작품들이 출품됐다. 어린이 부문은 9개 단체 114점, 대학생 부문은 10개 대한 141점, 일반 부문은 9개 단체 36점 등 총 291점이 접수됐으며, 각 부문별 5개 분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연등회보존회는 "전통등 전승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춰 각자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담겨져 있으며,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승전통등 경연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에서 더욱 우리의 전통등을 만드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고 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와 함께 진행된 '제10회 전국 청소년 등 공모전' 의 수상작은 11월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박재완 기자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 모집

접수 11월 18일~2020년 2월 7일
발표 2020년 2월 17일 개별통보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80명이다.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우편접수 또는 전화접수 가능) 제출처는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이다. 면접은 2020년 2월 1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2020년 2월 17일 개별 통보한다. 개강은 2020년 3월 4일이다.

불교합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목표로 하는 불교합창아카데미는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각 사찰 소속 합창단을 우대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되고 불교음악원 정회원 및 불음합창단 단원우대, 불교방송 및 불교행사 출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불교음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66.

박재완 기자

2019 가을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시대와 소통하고 세대와 공감하는

BTN 가을 개편

2019.10.07(월) ~

10/10 첫 방송!


붓다인사이드
본 (목)13:00
재 (목)22:30,(일)13:00
스님 변호사 교수 네 명의 패널들이 펼치는 가감없는 유쾌 명쾌 상쾌한 신개념 불교시사 토크쇼

10/8 첫 방송!


명상, 세상을 보다
본 (화)13:00
재 (화)22:30,(일)09:30
세계적인 명상 거장들이 말하는 21세기 최고의 건강법, 명상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는 프로그램

10/9 첫 방송!

설화견문록
본 (수)09:30
재 (수)19:30,(일)06:30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비하고 다양한 불교설화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난다. 글로벌 발굴단과 함께하는 불교설화 현장발굴스토리

10/10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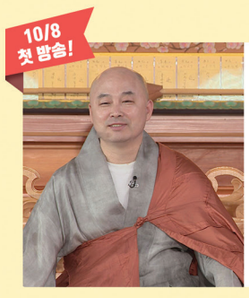
출가
본 (목)09:30
재 (목)19:30,(일)07:00
감히 쉽게 물어 볼 수 없었던 스님들의 출가이야기를 들어보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발원하는 한국불교초심회복 프로그램

10/7 첫 방송!


천년의 여행
본 (월)09:30
재 (월)19:30,(금)19:30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있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고화질 영상유산으로 남기는 프로젝트.

10/9 첫 방송!

활안스님의 천태지자대사 선교관
본 (수)07:30
재 (수)16:00,(토)20:00
지자대사는 선(禪)과 교(敎)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활안스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들어보는 천태지자대사의 선교관.

10/8 첫 방송!

행복나무에 핀 법화경 정혜선원 호연스님
본 (화)08:30
재 (화)17:00,(일)21:00
불교경전중의 제일(第一)경전이라고 불리는 법화경을 행복포교사 정혜선원 호연스님에게 배우는 기회.

10/7 첫 방송!

광우스님의 마음수행법회
본 (월,화,수)04:10
재 (목,금,토)06:30
광우스님의 새 강의가 선보인다. 불교수행의 총체인 지관(止觀) 좌선법에 대해 광우스님의 설명으로 쉽게 공부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10/9 첫 방송!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본 (수)13:00
재 (수)22:30,(금)15:00
명상에 대해 명성 있는 국내 명상가들이 총집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각 명상에 대한 종류와 일상생활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10/3 첫 방송!


BTN과 조계종 교육원이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본 (월)14:00
재 (월)22:30,(토)07:30
불교와 인문학의 환상적인 만남 안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본다.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B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